

박태환 '金 예감'

세계수영선수권 라이벌 해켓 1,500m 기권 가능성

'마린보이' 박태환(18·경고)과 10년간 장거리 수영 최강자로 군림해 온 그랜트 해켓(27·호주)의 제12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1,500m 대결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한국시간) 대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틀 전 자유형 800m 결승에서 실망스런 레이스로 7위에 그친 뒤 1,500m 출전 포기가 잠깐 있었던 해켓은 "현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이를 간 쉬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훈련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물 속에서 내 컨디션을 느껴볼 예정이다. 1,500m에 출전할 지 여부는 아마 예선 직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솔직히 말하면 현재 내 기분과 몸 상태는 100%가 아니다. 하루가 지나도 최상의 컨디션을 되찾지 못하면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해켓은 출전 포기와 관련해 추측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지만 이처럼 자신 없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출전 포기에 대한 결심이

선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해켓은 확실히 1,500m에 출전할 것"이라며 향간의 추측성 보도를 일축한 앨런 톰슨 호주 경영 대표팀 감독도 "해켓이 자신의 몸 상태를 자신 없어 하고 있다. 오늘 훈련을 통해 컨디션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켓은 31일 오전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래나에서 펼쳐지는 1,500m 예선에서 박태환과 같은 5조에 속해 함께 레이스 대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됐다. 1998년 호주 퍼스 대회 때 자국의 수영 영웅 키어런 퍼킨스의 뒤를 이어 자유형 1,500m 타이틀을 거머쥔 뒤 이 종목 최강자로 군림해 온 해켓. 하지만 세월의 무게에 눌러 이제는 '10년 권좌'를 반납해야 할 신세가 됐다.

한편 KBS 1TV는 31일 오전 11시20분부터 박태환의 1,500m 예선을 생중계하고, 박태환이 결승에 진출할 경우 KBS 2TV에서 4월 1일 오후 6시40분부터 결승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태환(왼쪽)이 지난 25일 멜버른에서 열린 제12회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1위로 골인한 뒤 3위 그랜트 해켓(호주)에게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터졌다, 개막포

30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미우리 자이언츠 대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개막경기 4회초 선두 타자 이승엽이 미우라 투수의 공을 받아쳐 중월 솔로 홈런을 친 뒤 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엽 '개막 축포'

작년 이어 2년 연속... 요코하마전 4회 동점 홈런

주니치 이병규는 2루타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2년 연속 일본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축포를 쏘아 올렸다.

이승엽은 30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센트럴리그 개막전에서 1-2로 뒤지던 4회 선두 타자로 나와 볼 카운트 1-3에서 상대 우안 선발 투수 미우라 다이스케가 던진 바깥쪽 144km 역회전 볼을 걸어올려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동점 솔로포를 작렬시켰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한 이승엽은 타구가 펜스를 넘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1루를 돌면서 손가락을 치켜들고 올 정규 시즌 첫 대포를 터뜨린 기쁨을 표실했다.

지난해 3월31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요코하마와 시즌 개막전에서 솔로포를 터뜨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이승엽은 이날도 개막전에서 홈런을 가동, 주포로서 결정적인 순간 강한 모습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올 시즌 경기에서 홈런 2개를 쏘아 올리는 데 그쳤던 이승엽은 이날 개막전에서 홈런을 터뜨리면서 올해 45개 목표를 향해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

이승엽은 1-0으로 앞선 1회 1사 3루의 첫 타석에서는 몸쪽 137km짜리 컷 패스트볼을 베타같이 잡아 당겼으나 상대 1루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가는 직선타로 아쉽게 물러났다.

7회 4번째 타석에서 이승엽은 우타자 오다 마사키로 교체됐다. 하라 다쓰노

리 감독은 6회말 수비 때 왼쪽 무릎 통증을 느낀 이승엽을 보호 차원에서 더그아웃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이날 1회 뜰타자 다카하시 요시노부의 선두 타자 초구 홈런으로 기선을 잡은 뒤 1-2로 끌려 가던 4회 이승엽과 루이스 곤살레스의 랑데뷰 홈런이 힘입어 3-2로 승리했다.

한편 주니치 드래곤즈의 이병규(33) 이날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개막전에서 2-3으로 뒤진 8회말 2사 후 베테랑 기타 마사오의 2구째 바깥쪽 높은 직구를 통타해 중월 2루타를 만들었다. 기세가 오른 주니치는 8회에만 6안타를 몰아치며 대거 5점을 뽑아 7-3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시현 단독 선두 '산뜻한 출발'

나비스코 챔피언십 첫 날 4언더파 68타

올들어 두드러진 성적을 내고 있는 안시현(23·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챔피언십에서 단독 선두에 나섰다.

안시현은 30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의 미션힐스골프장(파72·6천 673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2개로 막아내 4

언더파 68타를 쳤다.

로레나 오초아(멕시코·69타)에 1타차 단독 선두에 오른 안시현은 이로써 다섯번 째 한국선수 '메이저 킴' 탄생에 푸른 신호등을 켰다. 올해 출전한 두 차례 대회에서 모두 '톱 10'에 든 안시현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공동 8위, 2005년에는 최종 라운드에서 66타를 치는 등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파3홀 4개를 제외한 14개 홀에서 티샷을 평균 252야드에 이르는 장타를 때리면서도 한번도 페어웨이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린을 놓친 것도 세 차례에 불과했다.

장타력을 앞세운 이지영(22·하이마트)도 2언더파 70타를 쳐 3위 그룹에 합류, 우승 경쟁에 뛰어든 채비를 마쳤다.

세 차례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한 소렌스탐은 3오버파 75타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배구 동호인 다 모여라”

학운기 배구대회 내달 1일 개막

'순수 아마추어 배구인이 한자리에 모인다'

제6회 학운기 생활체육 전국 동호인 배구대회가 내달 1일 전남 대체육관과 학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다.

생활체육 광주배구클럽(회장 임준재)이 주최하고 광주시 동구 배구연합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북과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구 동호인 남녀 21개팀 총 500여명이 참여한다. 임준재 광주배구클럽회장은 "최근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배구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동호인 클럽간 친선도도 및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6년째를 맞는 학운기 배구대회는 40명으로 구성된 광주배구연합회들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순수한 회비로 마련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KIA, 한화에 0-1 패

2007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는 30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2007년 프로야구 한화와 시범경기에서 0-1로 패했다.

KIA 신임 용병투수 예서튼은 이날 선발로 나서 5.1이닝 4피안타, 3볼넷, 4탈삼진, 1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선보였다.

프로 데뷔 후 3년만에 첫 공식 등판한 우안 광정철(21·KIA)은 8회에 마운드를 물러받아 최고 구속 152km짜리 직구를 앞세워 1이닝 1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다.

KIA 타선은 2회말 볼넷 2개와 내야안타로 만루찬스를 잡았으나, 후속타 불발이 이어졌다. 1회와 3회에도 무사 1루찬스에서 후속타자의 연속 병살타로 득점을 얻는데 실패했다.

이밖에 삼성은 전날 패인 역전패를 안긴 LG에 5-3으로 시원하게 설욕했고, 두산도 선발 다니엘 리오스의 6이닝 3실점의 필리피 피칭을 발판으로 홈런 세 방을 터뜨려 롯데를 5-3으로 제압했다. 인천 문학구장에서는 SK가 현대의 추격을 2-1로 뿌리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첫 승 갈증 푼다

오늘 K-리그 서울·인천과 경기

K-리그 빅 매치 2판이 터진다.

아직 정규리그 승수를 쌓지 못한 광주와 전남은 홈에서 시즌 첫 승을 노린다.

광주 상무는 31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정규리그와 컵대회를 합해 5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지 FC서울을 맞아 힘겨운 싸움을 벌인다.

정규리그 3전 전패의 광주는 첫 승을 따내는 게 당면 과제다.

광주는 최근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쏘아 올리는 남궁도과 이동식을 앞세워 서울의 골문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올림파대표팀에서 맹활약중인 김승용도 힘을 보탠다.

하지만 서울의 파위가 만만치 않다. 지난 21일 수원전에서 헤트트리를 작성한 박주영과 이정룡, 기성훈 등 젊은 피의 기량이 최

정에 올라있고, 이을용, 이민성 등 베테랑의 경기 조율, 김한운-김치곤을 중심으로 한 포백라인도 남기 힘든 벽이다.

전남드래곤즈도 같은날 오후 2시 안방에서 약체 인천을 상대로 마수걸이 첫 승 사냥에 나선다.

2루1패(승점 2점)로 11위에 머물고 있는 전남은 산드로 히로시와 산드로C, 레안드롱 등 '용병 3인방'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 국가대표 김진규, 강민수, 김치우 등 베스트 멤버가 모처럼 팀에 합류한 것도 큰 힘이다.

이밖에 4월 1일에는 지난 시즌 챔피언 성남 일화화과 '레알' 수원 삼성이 성남에서 맞붙고, 정규리그 2위 울산은 부산 원정에서 에클리호와 만난다. 또 최윤겸 감독의 사표를 일단 유보한 대전은 경남과, 전북은 포항과 홈 경기를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

최경주 공동 26위

PGA 셀류스턴오픈 1R

최경주(37·나이키골프)와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셀류스턴오픈 첫날 공동 26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3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컴플의 레드스톤골프장 토너먼트코스(파 72·7천457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버디 5개와 보기 1개, 더블 보기 1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공동 선두 그룹과는 4타차.

작년 대회 우승자인 스티uart 애들비(호주)와 케빈 서덜랜드(미국) 등 3명이 나란히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나섰다.

특히 최경주는 이날 페어웨이 안착률이 92.9%로 공동 1위에 올랐고, 그린 적중률은 72.2%, 퍼트 수는 28개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앤서니 김도 버디 5개와 보기 3개로 2타를 줄여 최경주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